논어 8편 태백 2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恭而無禮則勞，愼而無禮則葸，勇而無禮則亂，直而無禮則絞。君子篤於親，則民興於仁。故舊不遺，則民不偷。」

독음 · 자왈 공이무례즉로 신이무례즉시 용이무례즉란 직이무례즉교 군자독어친 즉민흥어인 고구불유 즉민불투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손함·신중함·용기·곧음도 예가 없으면 피로, 두려움, 혼란, 각박함이 된다. 윗사람이 친족과 옛 벗을 후하게 대하면 백성도 인정을 지킨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恭 공손할 공 공 / 而 말이을 이

無 없을 무 무 / 禮 예도 례 례 / 則 곧 즉 / 勞 일할 로 로

愼 삼갈 신 신 / 葸 두려워할 시 / 勇 날랠 용 용 / 亂 어지러울 란 란

直 곧을 직 직 / 絞 목맬 교 교 / 君 임금 군 / 篤 도타울 독 독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親 사랑할 친 친 / 民 백성 민 민 / 興 일 흥 흥

仁 어질 인 인 / 故 옛 고 고 / 舊 옛 구 구 / 不 아닐 불

遺 잃어버릴 유 유 / 偷 훔칠 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